

Jaekwon Ahn

보낸 사람: "<남미정>" <meejungn@hanmail.net>
 받는 사람: <ysparkwf@magicn.com>
 보낸 날짜: 2006년 5월 18일 목요일 오후 4:00
 제목: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과 사랑을 전합니다

존경하는 박영숙 선생님께,

처음 드리는 편지라 조금은 긴장되고 떨리는 가운데 이 글을 씁니다.
 어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며 하루 일을 정리해 보면서
 제가 선생님께 말씀을 크게 잘못드렸음을 알게되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

선생님께서 길에서 보신 네팔가방이 모조품일까?.. 하셨는데, 제가 그 물음에는 답을 드리지 않고 엉뚱하게 김수진 학생이 저도 미처 생각치 못한 모조품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'젊은이라 머리회전이 빠르다'고 칭찬조로 말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부디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.

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럽긴 하지만, 저는 선생님의 당당하고 열심이신, 그러면서도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. 선생님을 늘 흠모하면서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
 옆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늘 든든하고 행복한 마음입니다.
 아마, 운동하는 많은 후배들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.. 생각합니다.

선생님,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. 저도 힘이 된다면 선생님을 돕고자 노력하겠습니다.
 다시한번 죄송함과 사랑의 마음을 전해드리며...
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.

남미정드림

"우리 인터넷, Daum" <http://www.daum.net> 『평생쓰는 무료 한메일넷』